

고등학교 아랍어 교과서의 오류 분석

이 인 섭*
Lee, In-Seop

The Error Analysis in the Arabic Textbooks for the High School

After publishing Arabic textbooks in Korea, many efforts were made to develop the efficient teaching method for Arabic and make foreign students learn it more effectively.

This research comes to be of help toward developing Arabic textbooks and aims to reconsider what makes foreign Arabic learners confused and burdensome, and find some ways to lighten a burden for them.

This study handles two main textbooks for the high school to analyse them and indicate some errors in spelling and using words for the proper context. And it is more focused on finding grammatical errors to correct them for the next textbooks.

The confusing elements for foreign students are as follows;

- disorder of some correlative grammatical elements.
- discordance of some descriptions.
- using some grammatical exceptions.

These confusing elements are followed by the examination of some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아과 조교수

errors in spelling and using proper word. And these are followed by grammatical error analysis, and here are some grammatical errors:

- conjunction 'fa' which connects the cause and effect.
- non-standard Arabic expressions, especially misuse of the corpus which is not used in the nominal sentence.
- spoken structures in the textbooks.
- wrong explanation for the prepositions.

Many misuses of the noun are found in the textbooks, especially some nouns impregnated with incertitude like 'ghayr' and 'mithl'.

- disagreement of number and gender categories in one sentence and tense discord in a conditional sentence.

This study gets through with some suggestions to limit the grammatical boundary for the high school level.

[keyword: Arabic, High School, Textbook, Error, Analysis]

I. 서 론

제 7차 교육과정¹⁾이 시행되면서 아랍어가 제2 외국어 교과목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일반계 고등학교와 외국어 계 고등학교를 위한 다양한 아랍어 교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교과서가 집필 지침인 「외국어과 교육과정 지침서」¹⁾의 교육 방향과 상치되는 경우도 있고, 교과서에 표기 오류를 비롯하여 어휘 사용에 나타난 형태적 오류, 의미상의 오류, 통사적 오류 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용 교재가 처음으로 개발되는데 대한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교재에서 아랍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도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용 기본 교과서인 『고등학교 아랍어 I』과

1)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14], 외국어과 교육과정(II).

『고등학교 아랍어 II』에서 발견되는 지식적인 문제점과 학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방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랍어 I』과 『고등학교 아랍어 II』 간의 연계성을 고찰하여, 학습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점정리의 요소를 밝혀 보다 쉬운 교육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아랍어 I’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10종 이상의 중·고등학교 아랍어 교재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교재로 개발된 『고등학교 아랍어 I』²⁾을 의미하고, ‘아랍어 II’라 함은 『고등학교 아랍어 II』³⁾를 의미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전사 방법은 발음이나 모음 표기상의 오류를 다루는 경우에는 실제 발음에 따라 전사 표기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발음이 나지 않는 첨가 자음을 제외하고는 문자 형태에 따라서 표기한다.

본고에서는 전사 표기상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여성형 종결 형태소인 *taʔ marbūʔaT*(‘닫힌 t’)를 T로, *taʔ maftūḥaT*(‘열린 t’)는 t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ʔalif*의 일반형태와 *ʔalif al-mamdūdaT*는 /ā/로 표기하고, *ʔalif al-maqṣūraT*는 /a:/로 표기하기로 한다.⁴⁾

본고에서 사용되는 ‘쪽수’는 ‘과’가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차이를 보이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과서 몇 과와 몇 쪽인지를 병기하기로 한다.

2) 이두선 외 7명, 『고등학교 아랍어 I』, 2002년, 서울: 두산 출판사.

3) 이두선 외 4명, 『고등학교 아랍어 II』, 2003년, 서울: 두산 출판사.

4) ‘*taʔ marbūʔaT*’는 일반적으로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h/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T/로 표기한다.

II.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점과 잘못된 설명

2.1. 『아랍어 I』

교과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혼란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비단원 10쪽의 연습문제에서 “다음의 자음 명칭을 말해 봅시다.”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에게 자음의 명칭을 기억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이기때문에 초급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예비단원 12쪽에서 명사의 격 모음 /u/는 자음 위에 쉼표 모양으로 표기한다 라고 설명되어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u/ 모음 표기가 아랍어 글자 w(wāw) 형태를 줄여서 표기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이다.

예비단원 14쪽에 maddaT를 ʔalif 받침 없이 (~) 형태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maddaT는 ʔalif의 장모음 표기법이기 때문에 ʔalif와 함께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쪽에서 이 글자를 ‘ʔalif-hamzaT’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maddaT를 설명할 때 두개의 ʔalif가 연속해서 오는 경우를 maddaT로 표기한다고 설명하면 자음이 2개인 경우와 자음과 장모음이 연결된 경우를 혼동할 수 있다.

예비단원 14~15쪽에서 대격 형태를 설명하면서, 여성형이나 ʔalif al-maqṣūraT로 끝나지 않는 비한정 단어의 어말에 ʔalif 형태가 첨가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비한정 대격 형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예비단원 15쪽에 여성형 종결 형태소인 tāʔ marbūṭaT(/T/)를 설명하면서 tāʔ marbūṭaT 뒤에 접미대명사가 연결되거나 복수 형태가 되면 원래의 형태인 tāʔ maftūḥaT(/t/)가 된다는 설명이 없으면서, 교과서에 사

용되고 있다.

예: 8과 93쪽 : ?anā masrurun bi-maʿrifatika. (“나는 당신을 알게되어 기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⁵⁾

13과 154쪽: ghurfatī (‘나의 방’)⁶⁾

외국어과 교육과정 지침서의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서 제시된 표현 yumkinu(‘그는 할 수 있다’)는 동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설명되었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 8과 99쪽에 언급된 표현인 yumkinunā(‘우리는 할 수 있다’)는 동사 뒤에 대격접미대명사가 결합된 상태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교과서에 첨부된 사용어휘 목록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즉, yumkinu뒤에 접속되는 대격대명사에 관한 설명이 없어서 초급단계의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접미대명사에 관한 설명은 3과 47쪽에서 1인칭과 2인칭 단수 대명사에 국한되었다. 3인칭 접미대명사는 7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낱말과 표현, 요점 정리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단지 15과 180쪽에서 minhā(‘그것들 중에서’)라고 설명이 되어있을 뿐이다.

이러한 3인칭 접미대명사의 용례를 다음과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7과 84쪽yuʿjibuhā (‘그녀의 마음에 든다’)

9과 105쪽li-ṣadiqihi (그의 친구에게)

9과 113쪽yumkinuhu (그는 ~을 할 수 있다.)

10과 120쪽liʾannahu shaʿara bi-ʾalamin fī baṭnihi (그는 배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fa-ʾaṣābathā al-kuraTu fī ʿaynihā (그런데 공이 그녀의 눈을 맞혔다)

wa-ṭalaba miḥā shirāʾ baʿḍa al-ʾadwiyaTi mina al-ṣaydaliyayi (그리고 그(의사)는 그녀에게 약국에서 약을 좀 사라고 요구했다)

5) maʿrifat의 원래 독립 형태는 maʿrifat이다.

6) ghurfat의 원래 독립형태는 ghurfat이다.

11과 134쪽?ila: baladihi (그의 나라로)

13과 155쪽wa-hiya turīdu ?an tusaʿīda ?ummahā.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돕기를 원한다.)

14쪽 166쪽wa-ladayhi šaḍīqun kūriyun, ismuhu mīn sū. (그리고 그에게는 한국인 친구가 한사람 있는데, 그의 이름은 민수이다.)

15과 178쪽wa-taḥaddatha maʿahum. (그리고 그는 그들과 이야기 했다.)

wa-minhā al-batrāʿu fī al-ʿurdunni. (그리고 그 중에는 요르단의 페트라가 있다.)

이렇게 3인칭 속격이나 대격 접미대명사가 설명되기 전에 여러 차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용례에 앞서 설명되어야 학습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과 27쪽에서 독립인칭 대명사라고 소개되었는데, 이는 대명사의 형태와 언어자질을 설명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 주격에 사용되는 독립인칭대명사, 또는 주격독립인칭대명사라고 설명해주어야 대명사의 형태, 기능, 언어자질을 모두 기술해 줄 수 있다.

『아랍어 I』에 전치사 ?ila:(‘~로’)에 사용된 ‘?alif al-maqṣūra⁷⁾’에 관한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예비단원 12쪽에서 ?alif 장모음을 설명하면서 모음을 갖지 않을 때 사용되는 ‘어말형 ?alif’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랍어 I』에서 여러 차례 조동사 laysa(‘아니다’)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처음 사용된 4과 57쪽에서 동사 laysa의 사용례를 설명하면서, 이 동사가 문두에 온다는 말도, 예문도 없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이 동사가 주어 뒤에 위치하는 동사로 이해하고 사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5과 67쪽에서 설명하였다시피 동사문은 VSO(동사+주어+목적어)어순이 기본 어순인데, 교과서에서 조동사 laysa를 주어 뒤에만 사용하게 되면 이 동사

7) 동사나 명사의 어말에 yāʾ가 변형되어 어말형 ?alif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용어로, 앞에 yāʾ가 오면 사용되지 못한다.

가 사용된 문장은 설명과는 달리 모두 강조된 문장인 셈이다. 이 laysa 조동사는 교과서 4과 54쪽, 58쪽에서도 사용되었다.

6과 71쪽부터 사용된 시제보조동사 kāna(‘이었다’)는 조동사 laysa와 용법이 같은데, 이 동사는 문두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연결형에 대해서는 4과 57쪽에서 처음 설명되었는데, 실제로는 설명에 앞서 사용되어, 학습자들이 연결형을 학습하는 데,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결형의 사용례는 57쪽의 설명에 앞서서 사용된 것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과 22쪽ṣabāḥa al-khayri (좋은 아침입니다.)

masāʔa al-khayri (좋은 오후입니다.)

3과 41쪽mā ismuka?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3과 44쪽mā ismuka?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smī layla: (내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이 이외에도 4과부터는 연결형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4과에서도 ʔabī (나의 아버지), ʔummī(나의 어머니), ʔakhī(나의 형), ʔukhtī(나의 누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연결형은 4과 54쪽, 15과 176쪽, 15과 178쪽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외국어과 교육과정 지침서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복합 연결형의 형태가 아래와 같이 두 번이나 사용되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14과 166쪽ziyāraTu ʔaḥmada li-kūriyā (아흐마드의 한국 방문)

ʔathnāʔ ziyāraṭihi li-kūriyā (그의 한국 방문동안에)

이 형태가 동사의 특성에 따른 전치사 구가 단순 연결형태의 뒤에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도 있지만, 형태상으로 복합 연결형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어과 교육과정 지침서에서 제외 문법으로 정한 상태문이 사용되

었다. 예를 들어서 13과 154쪽에 사용된 문장 “kayfa tusāʿidīna? ummaki?”(너는 어떻게 너의 어머니를 도와드리니?)에서 의문사 kayfa(‘어떻게’)는 상태문을 질문하는 의문사로, 답은 당연히 상태문이 되어야만 한다. 즉, kayfa에 대한 답으로 “나는 접시도 닦고, 방도 청소한다.”라고 말한 것이어서 이 답변이 상태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25쪽에서 kayfa를 ‘어떻게?’(의문사)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의미가 154쪽의 의문 문장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kayfa al-ḥālu?”(“안녕하십니까?)와 같은 문형에서 kayfa는 상태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를 묻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날말과 표현’에서 ‘어떤; 어떻다’로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이 적합하다.

7과 87쪽에서 동사 yuʿjibu(‘맘에 든다’)는 뒤에 항상 접미대명사가 오는 것 같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14과 171쪽 연습문제에서는 이와 달리 동사 뒤에 목적어가 분리되어 사용되었다: ʔayyu ʔaʕāmin kūrīyin yuʿjibu ʔaḥmada?(어떤 한국 음식이 아흐마드의 맘에 듭니까?)

이처럼 설명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이 실제 사용례에 나타나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된다.

5과 64쪽에서 동사문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67쪽에 동사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문두에 오는 동사는 항상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쪽에 제시된 동사 활용표에는 1인칭과 2인칭만을 소개하였고, 3인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인칭에 관한 변화표는 7과 87쪽에 처음 언급되는데, 본동사 3인칭의 사용례를 5과 64쪽, 67쪽 뿐 아니라, 6과 71, 77, 78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부족한 용례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아랍어 학습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사의 명령형이나 단축형도 아래의 예와 같이 설명 없이 사용되어서 학습자에게 부담이 된다:⁸⁾

5과 63쪽tafadhdhal (‘~시오’: 명령형)

- 6과 73쪽 hayyā nakhruj (‘자 나가자’: 1인칭 복수 미완료 단축형)
7과 83쪽 ?aṣṭinī kīlū khiyārin (‘내게 오이 1kg을 주세요.’: 명령형)

교과서에서는 3~10의 기수가 복수속격명사에 연결형을 이루어 사용된다는 데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기수+복수속격명사 구조를 갖는 연결 형태는 다음과 같이 여러 번 나타난다:

- 6과 74쪽 kūrīyā ?arbaʿaTu fuṣūlin.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
7과 84쪽 bi-khamṣaTi danānīra (5 디나르에)
11과 137쪽 al-sāʿaTu al-wāḥidaTu wa-khamṣu daqāʿiqa (1시 5분)
15과 176쪽 ʿindanā khamṣaTu ṣufūfin. (우리에게는 5반이 있다.)

수사의 용법에 대한 설명은 기수보다 서수에 더 치중되어 있다. 기수 사용례와 문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서수 사용법보다도 적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갖게 할 수도 있다.

1과 부터 격 표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격 표지에 대한 설명은 4과 57쪽에 처음 나온다. 설명이 늦은 것을 학습자에게 맡기고, 미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은 예비단원이나 2과에 언급되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 이외에, 중복 설명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동사 활용표를 제외하고 교과서에서 중복 설명된 것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6과 75쪽, 10과 120‘원인의 fa’(a-faʿ al-sababīyaT) 접속사
6과 75쪽, 15과 179쪽 fikraTun jamilaTun.

그러나 75쪽에서는 “좋은 생각이야.”로, 179쪽에서는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로 표현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같은 책에서 각각 다르게 표

8) 동사 미완료 단축형에 대해서는 『아랍어 II』의 6과 97쪽에 설명되었다.

현된 것은 가능하면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차이는 『아랍어 I』과 『아랍어 II』에서 같이 사용된 *ʔin shāʔa Allāhu*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아랍어 I』 5과 63쪽에서는 “알라(유일신)가 원하신다면”으로, 『아랍어 II』 8과 126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신이 원하신다면)”으로 해석되었다. 이렇게 같은 말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설명되는 것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접속사 *fa*(‘그래서’, ‘그리고 나서’)의 설명이 6과 75쪽과 10과 121쪽에서 중복되었다.

6과 77쪽과 10과 123쪽의 요점정리에서 시제보조동사인 *kāna*동사 완료형 변화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미래를 나타내는 후접어(proclitic) *sa*(‘~할 것이다’)에 대한 설명도 6과 77쪽과 13과 157쪽에 중복 설명되었다. 77쪽에서 이 동사를 설명할 때는 미완료 형태를 설명하지 않고, 미래형 *sa-yakūnu*(‘그는 ~할 것이다’)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후접어 *sa*에 관하여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후접어에 관해서는 13과 157쪽의 요점정리에 다시 설명되어있고 미완료형 변화표는 15과 182쪽의 요점정리에서 다시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 사용된 동사의 미래형은 아래에서와 같이 10과와 13과에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사용보다 설명이 늦은 것이 학습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0과 118쪽 *sa-ʔafḥaṣu* (‘나는 검사할 것이다’)

13과 153쪽 *sa-tafʔalu* (‘당신을 할 것이다’)

sa-ʔadhhabu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부록의 ‘단어 찾기’에 *sa-yakūnu*(‘그는 ~할 것이다’)가 마치 한 개의 독립어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동사의 미래형 표현과 비교해 균형이 결여된 설명이다. 또 후접어를 독립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2.2. 『아랍어 II』

동사 완료형을 사용해 설명하고서, 예에서는 미완료형을 사용한 경우도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예를 51쪽, 67쪽, 82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랍어 I』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요소가 『아랍어 II』에서 사용되면서, 자세한 설명이나 용례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되어 학습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준 요소들이 있다:

우선, 1과 18쪽에 사용된 전치사 뒤에 사용된 규칙복수속격+대명사 구조의 연결형태에서 /n/음이 탈락 현상에 대한 전제나 기술 없이 사용되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yusallimu ʕala: mudarrisīhi. (그는 그의 선생님들에게 인사했다.)

외국어과 교육과정 지침서에서 아랍어의 쌍수 용법과 그에 관한 설명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도록 정했다. 그러나 1과 18쪽에서 쌍수가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쌍수+접미대명사의 연결 형태에서 쌍수의 비한정 표지인 /n/음가가 탈락되는 현상도 설명 없이 사용함으로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walidāhu (그의 부모님: 주격)

walidayhi (그의 부모님: 속격 또는 대격)

2과 26쪽에서 liʔanna(‘~ 때문에’)는 liʔannī와 liʔannanī의 두 형태로 사용되었다. 1과 17쪽 요점 정리에서 설명 없이 두 개의 형태가 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예를 보여주는 했지만, 한 쪽지 글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아랍어 I』에서처럼 『아랍어 II』에서도 의문사 kam(얼마?)은 서술어 자리에 사용되는 용법으로만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서 2과 33쪽과

75쪽에서는 모두 의문사 kam+서술어(주격) 형태의 구조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9과 138쪽의 kam yawman yastaghriqu al-wuṣūlu taqrīban?("도착하는데 약 며칠이 걸립니까?")라는 문장에서는 kam+tamyīz⁹⁾ 구조가 사용되어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외국어과 교육과정 (Ⅱ)에서 '수사를 제외한 탐이즈'라는 표현으로 제외하기로 한 문법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제외한 탐이즈'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이 kam+tamyīz 구조를 교과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11~99와 이에 대한 대용어(예를 들어서 kam)와 함께 사용되는 탐이즈'라고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랍어 Ⅱ』에서도 반복 설명된 예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다.

- 1과 17쪽, 6과 98쪽li?anna('~ 때문에')
- 2과 35쪽, 5과 81쪽기수 11~19의 사용법
- 4과 67쪽, 9과 147쪽istaghraqa('시간이 걸리다')
- 7과 113쪽, 8과 129쪽?idhan('그러면')

Ⅲ.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

3.1. 표기 오류

『아랍어 Ⅰ』 교과서에서는 특별한 표기 오류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아랍어 Ⅱ』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상의 오류는 모음을 잘못 표기한 경우와 어근을 잘못 알고 표기한 경우를 일부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잘못 표기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다.

9) 문맥상 분명치 않은 단어나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대격 형태의 문장성분으로 '~의'의 의미를 나타낸다.

과	쪽수	잘못된 표기	바른 표기	의 미
6	88	salāṭaT	salaṭaT	샬러드
7	106	tashtarī	tashtariya	사다(2인칭 남성 단수 접속형)
13	204	juzuru al-qamair	juzuru al-qama	코모로 군도
13	205	fi al-ṣarabīyaTi al-mustakhdimah	fi al-ṣarabīyaTi al-mustakhdamah	사용되는 아랍어에는
15	236	yaghsilūna fihā ʔaydihim	yaghsilūna fihā ʔaydiyahum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손을 씻는다
15	236	thumma iqtaraba	thumma qtaraba	그리고서 그는 다가갔다
15	241	hādha al-filmu	hādha al-filmu	이 영화(주격)

3.2. 어휘 사용 오류

3.2.1. 『아랍어 I』

교과서에서 의미 전달이 모호한 경우를 찾을 수 있는데, 15과 177쪽에서 사용된 문장 lan ʔanāma hādhihi al-laylaTa liʔannanī mushtāqunʔila: al-riḥlaTi ghadan. (“나는 내일 여행을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밤에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에서 의지적으로 잠을 자지 않겠다는 의미는 내용상 올바르지 않다. 여기서는 여행에 앞서서 들뜬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는 잠을 잘 잘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lā ʔastaʔifu ʔan ʔanāma hādhihi al-laylaTa(“나는 오늘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표현해야 한다.

3.2.2. 『아랍어 II』

10과 151, 154, 158쪽에 사용된 wāṭin이라는 단어는 ‘낮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형태는 wāṭiʔin이 맞다. 3자음 중에서 어말 자음이 hamzaT인 경우는 tanwīn al-taʔwīd¹⁰⁾로 표기되지 않고, 3자음이 모두 표기된다.

1과 11쪽에서 ‘주말’을 fi ṣuṭṭaTi al-ʔusbūʕi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fi ṣuṭṭaTi nihāyaTi al-ʔusbūʕi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알맞은 표현이다.

같은 말이 같은 쪽지에 언급될 경우에 아랍어는 대명사나 대명사화사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그러므로 1과 11쪽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Muḥammad: sa-ʔadhhabuʔila: al-maktabaTi. (“나는 도서관에 갈 것이다.”)

FāṭimaT: sa-ʔadhhabu ʔila: al-maktabaTi...ʔayḍan. (“나도 역시 도서관에 갈 것이다.”)

위의 두 사람 대화에서 al-maktabaTi(‘도서관’)가 계속 언급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에는 ʔila: al-maktabaTi(‘도서관으로’)대신? ilayhā(‘그곳으로’) 또는 hunāka(‘거기에’) 등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8과 129쪽에서 언급된 예문 sa-ʔarjiʕu ʔila: Lubnāna li-ʔaqḍiay al-ʕuṭṭaTa al-ṣayfiyaTa fī baytinā (“나는 우리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레바논으로 돌아갈 것이다”)에서 화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 ‘나의 집’(baytī)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11과 171쪽에서는 hiya majīzun min al-māḍī wa-al-hāḍiri (“그것은 현재와 과거가 혼합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174쪽의 낱말과 표현에서 majīzun을 ‘혼합’이라고 명사형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10) ‘보충의 n 음가’를 일컫는 말로 보통 어말이 /y/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qāḍin(판사, 어근이 q-ḍ-i), thānin(둘째의, 어근이 th-n-y)과 같은 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단어는 수동분사의 의미를 갖는 과장형 형용사 형태(ṣiyagh al-mubalaghaT)의 한 종류로, ‘혼합된’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 이런 faṣilun 형태는 수동분사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여성형 단어를 수식하거나 여성형 주어에 서술할 때 여성형 표지어인 taʔ marbūṭaT를 쓰지 않고 나타낸다. 위의 문장에서 majīzun도 수동분사형태의 의미인 ‘혼합된’, ‘섞인’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여성형 표지어가 첨가되지 않았다.

11과 171쪽의 아래와 같은 대화문에서 부정의문문에 대한 답이 바르지 않게 표현되어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Nabīl: ʔidhan, hiya maziḡun min al-māḡi wa-al-ḡaḡiri, ʔa-laysa kadhālika?(나빌: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혼합된 것이 아니냐?”)

Hān Sū:naṣam.(한수: “그렇지”)

이러한 ‘나빌’의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한수’는 “그래,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하면서, 답은 naṣam(‘예’)으로 했다. 이 naṣam은 긍정의문문에 대한 답일 경우에는 긍정이 되지만, 부정의문문에서 이 표현으로 답을 하면 부정이 된다. 그러므로 위의 글은 어법상 맞지 않는다. 위의 대화가 바르게 되려면, 한수는 bala:(부정의문문에서 ‘그래’의 의미)를 사용해 표현해야 한다.¹¹⁾

13과 211쪽, 14과 221쪽, 223쪽에서 ‘사해’를 al-baḡru al-mayyitu(‘죽어가는 바다’)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al-baḡru al-maytu(‘죽은 바다’, 또는 ‘죽어 있는 바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¹²⁾

11) ʔImīl Badīf Yaṣqūb, Muṣjam al-ʔIṣrāb wa-al-ʔImlāʔ, p. 132, s.v. ‘bala:’ and al-Suyūṭiy, Hamṣ al-Hawāmiṣ fī Sharḡ Jamṣ al-Jawāmiṣ, vol. 4, pp. 372f.

12) 여러 사전에서 이 단어에 대한 이견을 자세히 설명한 문헌이 있다. v. ʔImīl Yaṣqūb, Badīf. Muṣjam al-Khaṭaʔ wa-al-Ṣawāb fī al-LuḡhaT, p. 249, s.v. ‘al-mayit’.

p. 236에 사용된 wa-baṣḍa al-ṭaṣāmi (그리고 음식 후에)라는 표현에서 baṣḍa뒤에 온 al-ṭaṣāmi라는 단어는 ‘음식’이라는 명사이다. 이렇게 명사를 ‘~ 후에’라는 전치사 뒤에 사용하려면, 다른 음식과 비교해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맞다. 그러나 ‘음식을 먹은 후에’, ‘식사 후에’라는 의미로 표현하려면, 전치사 뒤에 ‘먹음’이나 ‘마침’이라는 동명사가 ‘음식’ 앞에 사용되어서 wa-baṣḍa ṭakli al-ṭaṣāmi(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에), 또는 wa-baṣḍa intiḥāʾi min al-ṭaṣāmi(그리고 음식을 마친 후에)라고 표현해야 한다.

3.3. 문법 오류

3.3.1. 『아랍어 I』

교과서에서 아랍어의 규범을 벗어난 예문을 다음과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접속사 fa(‘그러므로’, ‘그래서’)가 6과 75쪽과 10과 120쪽에서 ‘그러므로’, ‘그래서’의 의미로 설명되었다. 이것은 접속사 fa의 용법 중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원인의 fa’(faʾ sababiyaT)라고 불린다. 실제로 이 접속사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6과 75쪽: ʾanā ʾuḥibbu al-kharīfa liʾanna al-jibāla jamīlaTun jiddan fihi. fa-ʾadhabu ʾila: al-jibāli fi al-kharīfi.(“나는 가을에 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을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가을에 산에 간다.”)

12과 145쪽: wa-yashfuru Muḥammadun bi-al-ṣaṭaṣhi fa-yashrabu al-māʾa al-bārīda.(“그리고 무함마드는 목이 말라서, 찬 물을 마신다.”)

일반적으로 접속사 fa는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히 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원인의 fa’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접속사 앞에 오는 문장이 원인이 되고, 접속사 뒤에 오는 문장이 결과가 되는데, 이때 접속사 fa로 연결되면, fa 뒤에 오는 동사 미완료 형태는 접속형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의 두 문장에서 이 접속사 fa는 모두 ‘원인의 fa’로 사용되었으므로, 접속사 fa 뒤에 오는 동사 미완료형이 접속형태로 사용되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75쪽의 fa-ʔadhabu(‘그래서 나는 간다’)는 fa-ʔadhaba로, 145쪽의 fa-yashrabu(‘그래서 그는 마신다’)는 fa-yashraba로 쓰여야 한다.

주지할 사실은 ‘원인의 fa’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완료형 동사로 표현되지 않는다. 만약 완료형 동사로 표현되었다면 비록 인과관계의 의미가 있을지라도 다음 예에서 보듯이 순서대로 사건이 완료된 것을 표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ijtahada al-ṭalibu fa-najaḥa.(“그 학생은 노력해서 합격했다.”)

raʔaytu ṣadiqī fa-sallamtu ʕalayhi.(“나는 내 친구를 보고 인사했다.”)

그리고 동사 미완료 접속형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 7과 87쪽에 나오지만, 이 접속사의 용도에 따라서 6과 77쪽의 요점정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랍어의 특성 중에서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명사문에서는 연계사(copula)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치사구나 부사구가 있으면 yūjadu(‘있다’), hunāka(‘거기에 (있다)’), mustaqirr(‘정착한’), mawjūd(‘발견되어지는’, ‘있는’) 등이 없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이런 류의 연계사를 사용하였다:

15과 177쪽: hal tūjadu ʔāthārūn kathīratun fī al-batrāʔi?(“페트라에는 많은 유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바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al fī al-batrāʔi ʔāthārūn kathīratun?(“페트라에는 많은 유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류 중에는 12과 143쪽의 mā huwa al-kīmtshī?(“김치가 무엇입니까?”)라는 표현이 있다. 이때의 mā(‘무엇’)는 서술어이고, al-kīmtshī(‘김치’)가 주어이기 때문에, 상기 언급된바와 같이 현재 시제의 명사문장에서 연계사 huwa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과 64쪽에 사용된 문장 ?adrusu al-lughaTa al-ṣarabiyaTa. wa-?anti mādha tadrusīna?("나는 아랍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당신(여성형), 당신은 무엇을 공부합니까?")의 경우, 두 번째 문장은 우리말 식 표현의 아랍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원래 wa-?anti? mādha tadrusīna?("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무엇을 공부하십니까?")라는 두 개의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구어체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에서 wa-?anti를 주제어(topic)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이 의문사 앞에 사용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아랍어에서는 의문사 앞에 전치사 이외의 품사가 올 수 없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만약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wa-mādha tadrusīna?("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공부하십니까?"), 또는 wa-mādha tadrusīna ?anti?("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공부하십니까?")라는 강조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서 ?anti('당신')은 tadrusīna('당신은 공부한다')의 행위자에 대한 강조형태이다.

3.3.1. 『아랍어 II』

1과 17쪽에서 li?anna('~때문에')가 이끄는 절의 시제가 앞의 시제보다 늦은 시제로 표현되었다.

ḥaṣaltu ṣala: natījaTan jayyidaTan li?annī qad dhākartu kathīran.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이미 좋은 결과를 얻었다."가 된다. 즉,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많이 공부했다'는 의미이다. 이 오류는 불변사 qad('막~하다')가 사용된 데서 기인된다. 이 불변사가 과거시제와 함께 사용되면, 과거의 끝과 현재의 시작 기점을 연결하는 시제 표지 기능어이다.

1과 18쪽과 19쪽의 요점정리 등에서 제시된 예문이 한 문장인 경우, 주어나 행위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3인칭 남성 단수형 동사만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인칭 주어가 주체인 것으로 간주해 행위자(actor) 없이 동사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에 주어나 행위자가 언급된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아랍어 II』에서 전치사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잘못이 있다. 전치사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용례가 소개되지 못해서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아랍어 II』에서는 다음 단어를 전치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잘못 설명되거나 사용례에서 잘못이 보이는 경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bayna(‘~의 사이에’; 1과 14쪽): 아랍어 전통문법 학자들은 전치사 중에서 장소와 방향을 표현하는 이러한 단어를 ‘부사어’라고 칭하면서, 전치사와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광의의 전치사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전치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② bi(‘~(시간)전’; 12과 195쪽): 설명이 잘못되었다. "qabla ... bi-"라는 표현에서 교과서에서 설명한 ‘~(시간)전’이라는 말은 잘못이다. 이때의 전치사 bi는 ‘...차이로’라는 의미이다.
- ③ ḥasaba(‘~에 따르면’; 4과 62쪽): 명사
- ④ waṣṭa(‘~의 중앙에’, ‘가운데에’; 4과 63쪽): 이 단어도 아랍어 전통 문법 학자들은 ‘부사어’라고 칭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전치사 범주에 속한다고 분류한다.
- ⑤ baʿda(‘~뒤에’, ‘후에’; 6과 94쪽): 격변화를 하는 명사이나, 일반적으로 대격으로 사용되면 전치사의 의미로 전성되어 사용된다.
- ⑥ qurba(‘~의 가까이에’; 6과 94쪽): 격변화를 하는 명사이나, 일반적으로 대격으로 사용되면 전치사의 의미에 가깝게 사용된다.
- ⑦ bi-jānibi(‘~의 옆에’, ‘곁에’; 6과 94쪽): 전치사 구
- ⑧ li(‘에게’, ‘~소유의’, ‘~을 위해’; 7과 115쪽): li는 7과 115쪽과 9과 146쪽에서 전치사로 올바르게 설명되었다. 그런데 8과 129쪽에서는 ‘~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하면서 품사가 전치사라는 설명을 배제했다. 아마도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품사를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li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는 ?an(동사문을 이끄는 접속어)가 생략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⑨ ḥawālay(‘약’, ‘대략’; 9과 142쪽): 명사

⑩ ṭilla(‘~분 전’; 12과 193쪽): 『아랍어 II』에서 이 단어를 전치사라고 설명하였지만, 시간 표현에서 이 단어 뒤에 오는 단어는 대격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아니라 제외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⑪ għayr(‘~이외에’, ‘~를 제외하고’; 3과 46쪽): 명사

이 단어에 따른 설명은 『아랍어 II』 내에서 서로 상치되는 면이 있다. 즉, 13과 209쪽에서는 이 단어를 명사로 설명하고 있다.

⑫ mithla(‘~와 같은’; 14과 226쪽): 명사

mithla와 같이 ‘모호함을 표현하는 단어’(kalimaT mutawaghghilaT fi al-ṭibhām)는 다른 단어와 연결형태를 이루어도 그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고 도리어 명확했던 단어가 더 불분명해지고, 모호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호함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단어들은 한정형태나 연결형을 이루어도 한정이 되지 않고, 뒤에 오는 단어의 형태와 성격에 상관없이 비한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단어 중에는 mithl(‘~와 같은’), shibh(‘~와 유사한’), għayr(‘~와 다른’) siwa:(‘~와 다른’), ṭayy(‘어떤’) 등이 있다.¹³⁾

mithl(‘~와 같은’)에 관한 언급은 26쪽과 171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과 26쪽: tūjadu mihanun mutanawwifaTun fi al-mujtamaṣi mithla al-mudarrisi(“사회에는 교사와 같은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이 문장에서 mithla al-mudarrisi(‘교사와 같은’)은 mihanun(‘직업’)의 수식어이다. 그러나 mithla가 대격이기 때문에 주격인 mihanun을 수식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 문장이 바른 형태가 되려면 mithla가 mithlu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장은 171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3) Ṭabū Ḥayyān al-ʿAndalusīy, al-Baḥr al-Muḥīṭ fi al-Tafsīr, Vol. 1, p. 49, Ṭāhir Yūsif al-Khaṭīb, al-Muṣjam al-Mufaṣṣal fi al-ʿIṣāb, p. 301, s.v. "għayr" and Nāyf Maṣrūf, al-Muṣjam al-Waṣīṭ fi al-ʿIṣāb, murājaʿaT: Muṣṭafa: al-jūzū, Beirut: Dār al-Nafāʾis, 1988, p. 313, s. v. 'għayr'.

11과 171쪽: wa-fihā ?āthārun tārikhiyaTun mithla al-quṣūri al-qadīmaTi("그리고 거기에는 옛 성과 같은 역사적인 유물이 있다.")

이 문장에서도 mithla al-quṣūri al-qadīmaTi는 ?āthārun을 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ithla가 mithlu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 171쪽에서 tujadu mithla nahri Hān.("한강과 같은 것도 있다.")라는 표현에서도 mithla('같은'; 대격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mithla nahri Hān가 문장에서 주어이기 때문에 주격인 mithlu(주격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는 219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14과 220쪽과 221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잘못을 찾을 수 있다:

220쪽: zārat Layla: baṣḍa al-?āthāri al-masihiyaTi mithla kanīthaTi al-qiyāmaTi ("라일라는 성묘교회와 같은 기독교 유적지 몇 곳을 방문했다.")

221쪽: ?ila: baṣḍa al-?āthāri al-?islamīyaTi mithla masjidi qubbaTi al-ṢakhraTi.("바위 돔 사원과 같은 이슬람 유적지 몇 곳으로")

이 두 예에서 mithla('같은')는 mithli(속격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mithla 앞의 단어가 모두 한정형태라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므로 al-?āthāri al-masihiyaTi('기독교 유적들')과 al-?āthāri al-?islamīyaTi('이슬람 유적들')에서 정관사를 모두 빼야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된다. 이와 유사한 잘못을 14과 요점정리(226쪽)에서도 두 곳이나 찾아 볼 수 있다.

7과 109쪽: yadhhabu al-marḍa: ?ila: al-ṭabibi li-shifa?ihim min al-?amrāḍi al-mukhtalifaTi mithla al-bardi wa-al-ṣudāṣi ...("환자들은 감기나 두통 같은 병에서 낫기 위해서 의사에게 갑니다.")

이 문장에서 mithla al-bardi wa-al-ṣudāṣi('감기나 두통 같은')이라는 말은 al-?amrāḍi(병)의 수식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에서도 '모호함을 표현하는 단어'(kalimaT mutawaghghilaT fi al-?ibhām)로 연결형을 이

루는 말은 비한정이기 때문에 앞의 한정형 명사를 수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장이 올바르게 사용되려면 al-ʔamrāḍi al-mukhtalifaTi에서 정관사를 제하고 ʔamrāḍin mukhtalifaTin(‘다양한 병들’)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문법 규칙을 109쪽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잘 드러난다.

8과 129쪽의 조건절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있다:

ʔidhā ʔaradtum ... ʔakhbirnī.(“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 (당신은) 내게 알려주시오.”)

이 문장에서 조건절의 당신은 복수형인데, 주절에서는 단수형이다. 그러므로 ʔakhbirūnī(“내게 알려주시오”; 복수형)라고 말해야 맞다.

그리고 같은 곳에 예로 사용된 두 문장에서 시제가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ʔidhā kāna al-jawwū laṭīfan ghadan, sa-nadhhabu fi riḥlaTin ʔila: al-jabali.(“내일 만약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산행을 할 것이다.”)

ʔidhā taḥarrakat min al-bayti al-ʔāna sa-taṣīlu ʔila: al-madrasaTi fi al-sābiṣaTi.(“지금 집에서 출발하면 당신은 7시에 학교에 도착할 것이다.”)

이 두 문장에서 종속절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주절에서는 모두 미래형이 사용되었다. 조건문에서 양쪽의 시제가 일치되게 사용하는 규칙에서 어긋나므로 모두 잘못이다. 이는 우리말의 해석에서는 맞지만 아랍어 문법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a-nadhhabu(‘우리는 갈 것이다’)는 조건문의 시제 일치를 위해서 dhahabnā(‘우리는 갔다’)로, sa-taṣīlu(‘당신은 도착할 것이다’)은 waṣalta(‘당신은 도착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10과 156쪽의 문장 kāna ʔamsu ʕīda mīlādī sūmī(“어제가 수미의 생일이었다”)에서 주어인 ʔamsu(‘어제’)는 비한정이면서 비한정 표지 형태소인 /n/발음이 없는 이상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a-ʔamsu(‘어제’)로 표현되어야 한다.

10과 161쪽의 요점정리에서는 과거시제 보조동사인 *kāna*(‘~었다’)의 서술어가 대격을 취하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에 관한 예문 중에서 보조동사 *kāna*가 아니라, 완전 동사인 *kāna*(‘~있었다’)를 예를 든 것은 잘못이다. 이 완전동사 *kāna*는 대격 서술어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kāna fi al-maktabaTi masāʔa ʔamsi.(“그는 어제 저녁에 도서관에 있었다.”)

이 문장에서 동사 *kāna*는 보조동사인 불완전 동사가 아니라, 사건과 시제를 다 지니고 있는 완전동사이다.¹⁴⁾ 그러므로 이 예문은 보조동사 *kāna*의 설명에 적합하지 않다.

11과 167쪽의 *ʔuqimat kaʔsu al-ʕalami li-kuraTi al-qadami sanaTa ...* (“...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kaʔsu*(‘배’, ‘잔’)는 여성형이다. 그러므로 주어 앞에 언급된 동사가 여성형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비록 동사문에서 사람이 아닌 여성형 주어에 남성형 동사가 사용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형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3과 202쪽에서 *hal*(‘~입니까?’) 의문문에 대한 답이 옳지 않다. 이는 *hal* 의문문에 대해서는 *naʕam*(‘예’)이나 *la*(‘아니오’)를 사용해서 답해야 하는 규칙을 무시한 것이다. 문맥상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학습자들에게 바른 아랍어 문법 교육을 위해서 원칙에 맞는 문장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202쪽에서 아랍 세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yatakawwanu al-ʕalamu al-ʕarabīyu min ithnayni wa-ʕiṣṣrīna baladan. wa-yaqaʕu fi ʔĀsiyā wa-ʔIfriqiyā. wa-lughatuhā hiya al-lughatu al-ʕarabīyaTu(“아랍 세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2개국으로

14) 아랍어에서 불완전 동사라 함은 동사의 기본 요소인 ‘사건’과 ‘시제’ 두 요소를 모두 갖추지 못한 동사를 일컫는다. 이러한 불완전 동사는 일반적으로 시제만을 표현하고, 사건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제를 배제하고 사건만을 나타내는 동명사를 갖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구성되어 있다. 그 언어는 아랍어이다.”)

이 글에서 ‘그 언어는’이라 함은 ‘아랍 세계’(남성형)의 언어를 가리킨다. 그러나 lughatuḥa(‘그것의 언어’)의 ḥa(3인칭 여성 단수 속격 접미 대명사)는 아랍 세계를 가리키는 대명사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lughatuḥa가 lughatuhu(hu: 3인칭 남성 단수 속격 접미 대명사)로 바뀌어야 한다.

...ḥilkh(‘그외에’, ‘~ 등’)는 앞의 wa같은 접속사를 넣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잘못을 10과 156쪽과 13과 202쪽에서 볼 수 있다.

『아랍어 I』에 대해 기술하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랍어 II』의 1과 10쪽, 8과 129쪽, 12과 188쪽, 12과 189쪽, 14과 219쪽에서도 동사문의 어순이 주어+동사의 순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장에서 강조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동사+주어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범적이다.

IV. 제안과 결론

제 7차 교육과정에 사용될 아랍어 교과서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통합교재 개발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육될 『고등학교 아랍어 I』과 『고등학교 아랍어 II』의 개발이 비록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 졌다고 할지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여러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크게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과 언어학습에서 간과될 수 없는 여러 층위의 오류로 대별된다.

전반적으로 『아랍어 I』에서는 오류가 적었지만, 학습자에게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은 많이 제시되었다. 『아랍어 II』에서는 학습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는 문제점과 요소도 적지 않았고, 표기

오류가 7군데 발견되었으며, 어휘 사용오류와 문법적인 오류도 적지 않았다. 특히, 품사 설명에 대한 오류나 동일한 오류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은 차후 아랍어 교재 개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주의 사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랍어 교육과정(II) 지침서 310쪽에 언급된 문법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대하여서는 더 자세한 기술과 약간의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행 문법 제한 사항		수정 사항
1	hamzaT의 난해한 받침 규칙		hamzaT에 대한 설명과 표기 규칙
2	악센트의 위치		삭제
3	불규칙 복수 유형		유형 학습 배제
4	기본형 동사 이외의 파생형 동사 수동태		수동태
5	상태 문장과 수사를 제외한 탐이즈		수사를 제외한 탐이즈
6	미완료 동사 강세형 & 난해한 강조 구문		삭제
7	축소명사	→	축소 명사, 횃수&자세 동명사
8	제외문		삭제
9	동사의 쌍수형 & 관계 대명사의 쌍수형		쌍수
10	복합 연결형		4 단어 연결형과 복합 연결형
11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제외한 조건문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제외한 조건문, 맹세문
기 타	추가해야할 제외 문법 항목		1) 부정 명령형 2) 동사의 의미를 갖는 명사 (ism al-fiʿl) 3) 동기(원인) 목적어 4) 동반 목적어

이상과 같이 아랍어 교과서에서 학습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는 요소와 오류를 일괄해 보고 바른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제 8차 교육과정을 위한 아랍어 교재가 개발될 때 이 분석과 제안으로 오류가 없어지고, 한국식 아랍어 표현이 바뀔 수 있게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아랍어, 고등학교, 교과서, 오류, 분석]

참고문헌

- 교육과정 지침서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14], 외국어과 교육과정(II)
이두선. 오명근. 김능우. 배혜경. 이동은. 이명원. 이종화. 최진영. 2002.
『고등학교 아랍어 I』. 서울: 두산 출판사
이두선. 오명근. 김능우. 이동은. 배혜경. 2003. 『고등학교 아랍어 II』,
서울: 두산 출판사
al-ʿAndalusīy, ʿAbū Ḥayyān, al-Baḥr al-Muḥīt fī al-Tafsīr, Beirut:
Dār al-Fikr, 1992, Vol. I. p. 49
al-Khaṭīb, Ṭāhir yūsif, al-Muʿjam al-Mufaṣṣal fī al-ʿiṣāb, Beirut:
Dār al-Kutub al-ʿilmīyaT, 1992.
al-Suyūṭīy, Ḥamṣ al-Hawāmiṣ fī Sharḥ Jamṣ al-Jawāmiṣ. taḥqīq: ʿ
Abd al-ʿĀl Sālim Mukarram, 7 vols. Kuwait: Dār al-Buḥūth
al-ʿilmīyaT. 1979.
Yaʿqūb, ʿImīl Badīṣ. Muʿjam al-ʿiṣrāb wa-al-ʿimlāʿ. Beirut: Dār al-
ʿilm li-l-malāyīn. 1983.
Yaʿqūb, ʿImīl Badīṣ. Muʿjam al-Khaṭʿ wa-al-Ṣawāb fī al-LughāT.
Beirut: Dār al-ʿilm li-l-malāyīn. 1983.
Maṣrūf, Nāyf. al-Muʿjam al-Wasīṭ fī al-ʿiṣāb. murājaʿaT: Muṣṭafa:
al-jūzū. Beirut: Dār al-Nafāʿis. 1988.

◆ 이인섭

·소속 및 지위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아과 조교수

·전 공 : 아랍어 문법

·학위취득대학 : 요르단대학교

·연 락 처 : 02)961-4866 (연구실)/ 011-9744-6000(휴대전화)

E-mail : jordanlis@hanmail.net